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성 미 혜* · 임 영 미** · 주 경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들이 경험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2006년 현재 9.5%로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이상으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될 것이며,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들어설 것이다(Nam et al., 2006).

노인 인구의 성비를 보면, 전체 501만 명의 노인 중 여성이 298만 명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는데(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긴 평균수명을 가지고 있어 고령기가 훨씬 길기 때문이다(Kim, Kang, & Kim, 2008). 한편 독거노인의 남녀 구성비도 독거노인의 14%정도는 남성이며, 86%는 여성 독거노인이 차지하고 있어(Bae, 2007), 독거노인의 문제는 곧 여성노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인 부양체계가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 상황 속에서 독거노인이 생활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Huh, 2000).

독거노인은 노화에 따라 흔히 나타나는 외로움, 빈곤, 질병의 문제를 경험하며 가사 서비스 원조 및 간호를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관계망과 격리되어 있고(Chae, 2006; Lee, 2003),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취약하고 의존성이 높은 집단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Kang, Seo, & Kim, 2004; Kim et al., 2008).

여성 노인이 경제적, 신체적으로 자립할 수 없고 가족으로부터 도구적·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의 독거생활은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Seo & Kim, 2003). 대부분의 여성노인은 '가족중심'적 좁은 생활환경에 국한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망이 좁고, 노후적응문제, 외로움 해소 등의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남성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Kim et al., 2008). 외로움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지지가 양적이나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경험으로 외로움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정신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일시적인 것 보다는 대부분 만성적인 것이므로 노인의 외로움은 중요한 건강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Kim, 2006; Stravynski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건강과학연구소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youngmi@yonsei.ac.kr)

*** 문경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투고일: 2011년 2월 15일 심사회의일: 2011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12일

& Boyer, 2001). 노인의 외로움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확대에 노인들의 생활행태가 변화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일반 노인의 경우 73.6%가 외로움을 느끼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는 80%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외로움은 동거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거나 사별 이후 홀로 지낸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상호작용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외로움의 정도는 사별, 이혼, 독신의 순서로 나타나 있으며, 연령이 높고, 사회적 활동이 적고, 교육정도가 낮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외로움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et al., 2004). McInnis (Kim, 2006에 인용됨)가 7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상자 모두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인가구주의 성별 결혼 상태에서 여성의 유배우자율이 7.8%로 남자노인의 유배우자율보다 11배가 적게 나타난 결과(Lee & Sim, 2004)를 볼 때,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Park 등(2004)은 노인의 외로움은 외로움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노인 자신에 대한 가치, 노화된 신체의 건강행위 등과 연관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외로움이 38.8%의 설명력을 보여 노인이 건강행위를 실행하는 데 있어 역기능적 요소로 작용하는 외로움 감소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충고, 물질적 원조 및 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악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하여 사회관계의 축소를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가능하며,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상실과 외로움 등을 줄이고 생활사건에 대처하게 한다(Bae, 2007에 인용됨). 또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 등을 감소 또는 완화시켜 성공적인 노화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한다(Lee & Lee, 2002).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개인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감정적인 결속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Huh, 2000). 사회적

지지 내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지지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외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Foxall, Barron, Von Dollen, Shull, & Jones, 1993). Kim과 Baik(2003)은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덧붙여,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에 비해 지지자의 수는 많으나 이에 대한 만족감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지지자의 수는 더 적다고 하였다.

Song 등(2007)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그들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Kim과 Baik(2003)도 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자의 수보다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이 외로움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강화시켜 만족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외로움에는 이들의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격리될 가능성이 높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및 친척, 이웃 등의 비공식적 관계망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기관 등과 같은 공식적 관계망도 역시 취약한 실정이다(Chae, 2006).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여성 독거노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많은 문제점을 지닌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Kim & Baik, 2003).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Huh(2000)는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녀, 친척, 이웃, 종교단체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외로움은 낮아지고, 자녀, 친척, 이웃의 도구적 지지가 높을수록 외로움은 낮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도구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외로움은 모두 낮았고, 정서적, 도구적 지지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으면 외로움 또한 낮았다고 하였다.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Song 등(2007)은 노인의 외로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가족구성원의 친밀도, 생활만족도, 신체활동 참여여부 및 지각한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이며, 이들의 외로움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만족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종교,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을 위한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를 강화시키는 물론 가족체계 내에서 정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고독감을 조사한 연구는 있으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연구한 Huh(2000)의 연구가 있을 뿐이며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있는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Seo & Kim, 2003),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질(Kim et al., 2008), 사회적 지지의 교환경도와 우울(Bae, 2007), 고독감과 생활만족도(Lee & Sim, 2004) 등으로, 여성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독거노인을 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관내 소속된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사 중심의 여성 독거노인을 위한 간호중재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들에게 유용했던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가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중재할 때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지지망과 외로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유형별 기능, 사회적 지지 만족도 및 외로움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파악

한다.

- 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사회적 지지

개인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감정적인 결속으로 이루어지는 관계(Huh, 2000)로, 본 연구에서는 Huh(2000)가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사용한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외로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대인관계가 불충분할 때 나타나는 정서적, 감정적 고립의 상태를 의미한다(Huh, 2000). 본 연구에서는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발한 개정판 RULS(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의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을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면담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수준과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들로 선정하였다. 표본 수는 상관관계 연구에서의 적절한 표본수를 추출하는 공식(Ahn, Ryu, & Park, 2008)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05, 상관계수=.30, 검정력(power)=.80으로 산출하였을 때

85명이 필요하지만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로, 먼저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과 노인정을 방문하거나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대상자가 직접 설문에 작성을 하거나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가 진행 동안 설문조사는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을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설문작성시간은 약 30분~40분이 소요되었다. 총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중 질문에 대한 응답이 부실한 18부를 제외한 11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사회적 지지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uh (2000)가 Park(Huh, 2000에 재인용)의 사회적 지지척도와 웨테이커와 트레이시(Huh, 2000에 재인용)의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social network grid)를 기초로 독거노인의 특성에 맞게 측정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천과 지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사회적 지지원천은 자녀, 형제자매, 친척, 이웃, 자원봉사자, 종교단체,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지지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상사 등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Park, 1985)이며, 노인의 사회적 지원 중 양적방법은 가족, 친척, 이웃, 친구와의 접촉빈도, 물리적 거리감, 서비스 교환, 정부나 단체의 도움 등의 객관적 유대이며(Kim, 2007),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위한 개입 전략이 사회사업 실천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개인, 가족, 지역사회 수준에서 제시되어져 왔던 것(Chae, 2006)을 근거로, 이들 여성을 도와줄 수 가

능자원을 지지원천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지지유형은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속사정을 털어 놓은 수 있는가',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가', '어떤 일의 결정을 해야 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며, 도구적 지지는 '돈을 주거나 빌려줄 사람이 있는가', '아플 때 보살펴 줄 사람이 있는가', '시간을 내서 집안일을 봐줄 사람이 있는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문항 수는 정서적 지지 3문항, 도구적 지지 3문항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 0점에서 '많이 있다' 2점의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각각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 6문항에 대해 각각 '매우 불만족한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사회적 지지 도구는 지지원천과 지지유형(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및 사회적 지지만족도로 구성된 도구로, 사회적 지지 도구의 신뢰도는 .89였다.

2) 외로움

대상자의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 등(1980)이 제작한 개정판 외로움도구 RULS(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를 Kim (1997)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10개, 부정적 문항 10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여 합산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의 분포는 20-80점이며, Kim(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및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71~79세가 43.8%(49명)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74.9세(표준편차 6.44)였다. 학력은 무학이 42.0%(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초등학교 졸업이 40.2%(45명), 중학교 졸업이 9.8%(11명)순이었다. 종교는 천주교가 34.8%(39명), 무교가 24.1%(27명), 불교가 22.3%(25명)순이었으며, 자녀수는 3~4명이 42.9%(48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자녀수는 2.99명(표준편차 1.74)이었다. 독거기간은 10년 이상이 34.8%(39명), 5년 미만인 33.0%(37명), 5~10년 미만이 29.5%(33명)순으로 평균 독거기간은 10.8년(표준편차 10.5)이었다. 사회 활동 참여는 '소극적으로 한다'가 73.2%(82명)로 대부분이 소극적이었으며, 재정걱정은 '약간 있다'가 35.7%(40명), '매우 걱정된다'가 32.1%(36명), '보통이다'가 18.8%(21명)순이었다. 병원방문은 '자주 간다'가 41.1%(46명), '보통이다'가 39.3%(44명)로 80% 이상이 보통이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Table 1).

1) 사회적 지지 원천별 지지 정도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원천별 지지 정도를 보면 (Table 2), 사회적 지지는 자녀가 제공하는 지지가 평균 0.7점(표준편차 0.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2)

Characteristics	Category	n	%
Age(yrs)	≤70	31	27.7
	71-79	49	43.8
	≥80	31	27.7
Education	No answer	1	0.8
	No schooling	47	42.0
	Elementary	45	40.2
	Middle	11	9.8
	Above high	6	5.4
Religion	No answer	3	2.6
	Protestant	19	17.0
	Buddhist	25	22.3
	Catholic	39	34.8
	Irreligious	27	24.1
Number of children	No answer	2	1.8
	≤2	42	37.5
	3-4	48	42.9
Duration of living alone (yrs)	≥5	20	17.9
	No answer	2	1.7
	<5	37	33.0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5-10	33	29.5
	≥10	39	34.8
	No answer	3	2.7
Financial difficulty	Passive	82	73.2
	Active	16	14.3
	No activity	10	8.9
Visiting time of hospital	No answer	4	3.6
	Slight	21	18.8
	Mild difficulty	40	35.7
	Severe difficulty	36	32.1
None	None	12	10.7
	No answer	3	2.7
	Rare	10	8.9
	Average	44	39.3
	Many times	46	41.1
Very often	Very often	11	9.8
	No answer	1	0.9

으로는 이웃이 제공하는 지지가 평균 1.5점(표준편차 1.07), 형제·자매가 제공하는 지지가 평균 0.6점(표

Table 2. Degree of Social Support by Sources of Social Support

Source of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Total
	M(SD)	M(SD)	M(SD)
Children	1.0(0.55)	1.0(0.64)	1.0(0.58)
Brothers & sisters	0.7(0.51)	0.5(0.53)	0.6(0.48)
Relatives	0.6(0.57)	0.5(0.54)	0.5(0.53)
Neighbors	0.8(0.54)	0.6(0.58)	0.7(0.53)
Volunteer	0.5(0.57)	0.3(0.52)	0.4(0.52)
Religion organizations	0.6(0.61)	0.4(0.51)	0.5(0.52)
Welfare worker	0.4(0.64)	0.3(0.56)	0.3(0.55)

준편차 0.48)순이었다. 사회적 지지원천별 지지의 정도를 보면 모든 지지원천에서 정서적 지지가 도구적 지지보다 높았다.

2) 사회적 지지 만족도와 외로움 정도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만족도는 총 30점 만점에 평균 18.1점(표준편차 5.40)이었으며,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총 15점 만점에 평균 9.2점(표준편차 2.80)점, 도구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총 15점 만점에 평균 8.7점(표준편차 3.10)으로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총 80점 만점에 평균 41.3점(표준편차

8.67)으로 평균 수준이었다(Table 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외로움은 연령($F=7.27, p=.001$), 자녀수($F=10.22, p<.001$), 재정걱정($F=4.64, p=.004$)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80세 이상인 대상자가 그 이하인 연령의 대상자보다 외로움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자녀수가 2명 이하인 대상자가 3명 이상인 대상자보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재정걱정을 매우 많이 하는 대

Table 3. Degree of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Social support satisfaction	18.1(5.40)	6	30
Emotional support satisfaction	9.2(2.80)	0	15
Instrumental support satisfaction	8.7(3.10)	3	15
Loneliness	41.3(8.67)	23	58

Table 4. Lonel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Age(yrs)	≤70 ^a	a	40.9(8.09)	7.27	.001	a,b<c
	71-79 ^b	b	38.6(9.30)			
	≥80 ^c	c	46.0(6.12)			
Education	No schooling		42.4(8.80)	0.72	.539	
	Elementary		41.3(8.07)			
	Middle		40.0(9.62)			
	Above high		37.5(10.83)			
Religion	Protestant		43.5(7.90)	1.76	.160	
	Buddhist		38.2(9.76)			
	Catholic		40.8(8.51)			
	Irreligious		43.0(8.08)			
Number of children	≤2	a	44.1(7.71)	3.24	.043	b,c<a
	3-4	b	39.6(9.19)			
	≥5	c	40.0(8.31)			
Duration of living alone (yrs)	<5		40.6(8.64)	0.53	.586	
	<5-9		41.0(9.14)			
	≥10		42.6(8.23)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Passive	a	42.1(8.49)	10.22	p<.001	b<a,c
	Active	b	33.8(6.54)			
	No activity	c	47.7(5.07)			
Financial difficulty	Slight	a	38.7(9.44)	4.64	.004	d<c
	Mild difficulty	b	40.8(8.57)			
	Severe difficulty	c	45.0(6.99)			
	None	d	35.9(8.85)			
Visiting time of hospital	Rare		38.8(6.52)	0.51	.671	
	Average		41.9(9.01)			
	Many times		40.9(8.72)			
	Very often		43.1(9.33)			

상자가 재정적이지 않은 대상자보다 외로움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원천 및 사회적 지지만족도와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원천 및 사회적 지지만족도와 외로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외로움은 사회적 지지원천 중 자녀가 제공하는 지지($r=-.30, p=.004$), 형제·자매가 제공하는 지지($r=-.29, p=.008$), 친척이 제공하는 지지($r=-.40, p<.001$), 이웃이 제공하는 지지($r=-.44, p<.0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만족도($r=-.45, p<.001$)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45, p<.001$)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한 결과, 상관관계는 $-0.14\sim 0.49$ 로 0.8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2.03으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가 $0.55\sim 0.96$ 으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03\sim 1.81$ 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

Table 5.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12)

	Loneliness	Children	Brothers & sisters	Relatives	Neighbors	Volunteer	Religious organization	Welfare worker
Children	-.309 (.004)	1						
Brothers & sisters	-.299 (.008)	.491 (.001)	1					
Relatives	-.401 (.001)	.359 (.001)	.510 (.001)	1				
Neighbors	-.443 (.001)	.000 (.997)	.260 (.023)	.286 (.012)	1			
Volunteer	.076 (.527)	-.311 (.007)	-.161 (.172)	-.185 (.114)	.442 (.000)	1		
Religious organization	-.081 (.491)	.087 (.453)	.114 (.328)	.083 (.478)	.406 (.001)	.583 (.001)	1	
Welfare worker	.124 (.289)	-.470 (.001)	-.143 (.220)	-.084 (.474)	.422 (.001)	.716 (.001)	.397 (.001)	1
Social support satisfaction	-.459 (.001)	.447 (.001)	.396 (.001)	.211 (.078)	.368 (.001)	.164 (.176)	.230 (.048)	-.003 (.983)
Emotional support satisfaction	-.373 (.001)	.410 (.001)	.309 (.001)	.204 (.085)	.310 (.007)	.130 (.281)	.241 (.038)	-.021 (.858)
Instrumental support satisfaction	-.416 (.001)	.428 (.001)	.707 (.001)	.216 (.062)	.365 (.001)	.188 (.111)	.204 (.077)	.016 (.893)

Table 6. Effects of Study Variables on Loneliness

Variable	B	SE	β	t(p)	R ²	Adj R ²	F(p)
Constant	57.52	2.40		23.94 ($p<.001$)		.500	17.81 ($p<.001$)
Social support satisfaction	-1.59	.41	-.37	-3.87 ($p<.001$)	.328	.316	
Degree of social support satisfaction neighbors	-1.82	.64	-.26	-2.83 ($p=.006$)	.458	.439	
Degree of social support satisfaction relatives	-2.80	.79	-.41	-3.52 ($p=.001$)	.513	.488	
Social support	1.69	.72	.25	2.33 ($p=.023$)	.556	.524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17.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 < .001$), 측정 변인들의 외로움에 대한 설명력은 52.4%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이웃이 제공한 지지, 친척이 제공한 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beta = -.43, p < .001$), 이웃이 제공한 지지($\beta = .30, p = .006$), 친척이 제공한 지지($\beta = -.27, p = .011$), 사회적 지지($\beta = .25, p = .023$) 순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이웃이 제공한 지지와 친척이 제공한 지지,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았다.

IV. 논 의

여성노인들은 문화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들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노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특히 여성 독거노인들은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한 사회관계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외로움으로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Seo & Kim,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원원천별 지지정도에서 대상자가 지지를 받은 원천은 자녀($M = 2.0$), 이웃($M = 1.0$), 형제·자매($M = 1.3$) 순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지지도에서 자녀가 가장 높고 이웃, 사회종교단체, 친척 순으로 나타난 Seo와 Kim(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 생활에서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유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접촉을 통한 정서적 유대이며,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 사회관계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Kim, 2006)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제공효과는 그 원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누가(원천) 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Huh, 2000), Choi와 Lee(2003)는 우리나라 노인들 대부분은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사적인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가

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빈번히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원원천별 지지유형 정도는 모든 지원원천에서 도구적 지지보다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 292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원천과 사회적 지지 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한 Huh(2000)의 연구에서 지원원천별 지지정도의 관계에서 모두 도구적으로 지지하기 보다는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Huh(2000)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여성 독거노인들은 사회적 지원원천으로부터 지지를 받더라도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지원원천과의 대화를 통한 정서적 지지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원천들도 여성 독거노인들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도구적 지지 외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평점이 총 10점 만점에 평균 6.0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과 Baik(2003)의 연구에서 '약간 만족한다'로 나온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성 독거노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및 이웃등과 같은 1차적 집단과 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외로움 정도는 평균 41.3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과 Baik(2003)의 연구에서 평균 51.6으로 나온 결과와 독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와 Sim(2004)의 연구에서 평균 50.2로 나온 결과보다 낮은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비록 독거노인이기는 하지만 대상자의 8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약 90%의 대상자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Huh(2000)의 연구에서도 독거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나 여가활동은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로움은 노년기의 전반적인 안녕감 및 삶의 질 저하, 우울, 무력감, 절망감 등의 부정적 정서의 증가를 야기하여 만성화 될 경우 자

살 위험 증가까지 초래할 수 있어 노년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Song et al., 2007; Ekwall, Sivberg, & Hallberg, 2005)는 면에서 이들의 외로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연령, 자녀수, 사회활동 참여, 재정걱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2006)의 연구에서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동거유형, 경제수준, 건강상태, 사회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Tijhuis, De Jong-Gierveld, Feskens와 Kromhout(1999)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결과, 그리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Huh(2000)의 연구에서 종교, 자녀수에 따라 외로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Park 등(2004)은 노인들의 외로움은 동거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거나 사별이후 혼자 지낸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상호작용 대상이 없어졌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배우자를 통한 사회관계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측정할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이들 여성의 외로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변인을 밝히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지지의 원천 및 사회적 지지만족도와 외로움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자녀, 형제·자매, 친척, 이웃이 제공하는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사회적 지지만족도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독거노인은 대상으로 한 Huh(2000)의 연구에서 자녀, 형제·자매, 친척, 이웃, 종교,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사회적 지지의 만족도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독거노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1차적 집단인 자녀, 형제·자매, 이웃, 친척 등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이들의 외로움은 증가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외로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성 독거노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때 그들의 기대를 고려하여 지지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im(1998)은 노인을 대상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사

회적 지지의 크기와 만족도를 사정함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으로 대상자들을 지지할 수 있는 가능하고 유용한 구성원들을 교육하여 지지도를 높여 노인의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이 지지자들의 숫자보다 외로움에 더 큰 영향을 주므로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Song 등(2007)은 노인의 외로움은 노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횡수보다는 그 질의 정도,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인가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대상자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 이웃이 제공한 지지, 친척이 제공한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총 52.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Huh(2000)의 연구에서 자녀, 친척, 이웃, 종교단체가 제공한 지지가 높을수록 외로움은 낮아지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외로움은 낮아진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독거노인에게는 이웃이나 친척이 제공한 지지가 이들의 외로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에 의한 공적지지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지지를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가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으로 사회적 지지원천에서 간호사가 포함되지 않아 간호사에 의한 공적지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결과의 간호학적 의의가 약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공적지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만족도로 외로움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집단인 이웃이나 친척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여 조직적이고 개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V. 결 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 정도를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 원천별 지지정도는 자녀가 제공하는 지지, 이웃이 제공하는 지지, 형제·자매가 제공하는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원천별 지지의 정도는 모든 지원처에서 정서적 지지가 도구적 지지보다 높았다. 여성독거노인의 외로움은 연령, 자녀수, 재정격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외로움은 사회적 지지원천 중 자녀가 제공하는 지지, 형제·자매가 제공하는 지지, 친척이 제공하는 지지, 이웃이 제공하는 지지 및 사회적 지지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 이웃이 제공한 지지와 친척이 제공한 지지였으며, 이들 변인은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50%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 이웃이 제공한 지지와 친척이 제공한 지지 등의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외로움을 설명하는 제 변수의 예측력도 50%로 나타나 여성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마련 시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 및 이웃과 친척에 의해 제공되는 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Ahn, Y. O., Ryu, G. Y., & Park, B. J. (2008). *Manual for medical statistic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Bae, S. H. (2007). *Study of the female elderly person who live alone in the farm and fishing vill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change degree of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Chae, H. T. (2006). A study on the enhancement plan of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 living alone-aged inhabiting rural region: case of siyamachi in Japan. *Social Welfare Policy, 24*, 225-256.
- Choi, Y. M., & Lee, S. J. (2003).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ocial support network for single home-owned old peopl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2*, 193-217.
- Ekwall, A. K., Sivberg, B., & Hallberg, I. R., (2005). Loneliness as a predictor of quality of life among older caregiver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1), 23-32.
- Foxall, M. J., Barron, C. R., Von Dollen, K. V., Shull, K. A., & Jones, P. A. (1993). Living arrangements,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of low vision older client. *Journal of Ophthalmic Nursing Technology, 12*(2), 67-74.
- Huh, S. Y.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ang, H. Y., Seo, N. S., & Kim, Y. H. (2004). Health pattern of elderly according to aged group who living alone in an urban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6), 1057-1068.
- Kim, J. H. (2006). *The relationship among loneliness, emotion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Kim, M. R. (2007). The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 persons. *Bulletin of Kyonggi University*, 37, 317-349
- Kim, O. S. (1997).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4), 871-879.
- Kim, O. S. (1998).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Korea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0(2), 311-321.
- Kim, O. S., & Baik, S. H.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loneliness,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in elderly Kore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3), 433-439.
- Kim, S. H., Kang, H. J., & Kim, Y. J. (2008). The effect of a social network of female elderly living.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3), 51-71.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Aged population by sex. Retrieved December 30, 2009, from http://kostat.go.kr/nso_main/nsoMainAction.do?method=search&catgrp=nso2009&catid1=k09_0000&catid2=k09i_0000&forward=search
- Lee, E. S., & Sim, W. K. (2004). Effects of group horticultural activities as a leisure on the isol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solitude elderly femal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Plants People and Environment*, 7(3), 31-37.
- Lee, M. S. (2003). Factors influencing health care needs of solitud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6), 812-819.
- Lee, S. S., & Lee, K. J. (2002). Th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1), 1-20.
- Nam, K. M., Kim, O. B., Bang, Y. S., Lee, C. H., Jang, M. S., Yoon, H. J. et al. (2006). *Aging society and welfare for the elderly*. Pajou : Yang seo won, Co.
- Park, J. 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Park, Y. J., Jung, H. K., Anh, O. H., & Shin, H. W. (2004). The relationship of loneliness, health behavior and self-esteem in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6(1), 91-98.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Seo, Y. S., & Kim, O. N. (2003). The old solitary women's social relationship and mental health on farm village. *Bulletin of Daebul Research*, 2(1), 137-161.
- Song, J. A., Jang, S. O., Lim, Y. J., Lee, S. J., Kim, S. Y., & Seol, G. H. (2007). Factors affecting loneliness in community dwelling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14(3), 371-381.
- Stravynski, A., & Boyer, R. (2001). Loneliness in relation to suicide ideation and parasuicide: A population-wide study. *Suicide Life Threatening Behavior*, Spring, 31(1), 32-40.
- Tijhuis, M. A., De Jong-Gierveld, J., Feskens, E. J., & Kromhout, D. (1999). Changes in and factors related to loneliness in older men. *Aged Ageing*, 28(5), 491-49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Sung, Mi-Hae(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Institute for Nursing Science)

Lim, Young Mi(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Joo, Kyung-Sook(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Mun Kyung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Method:** Between 1 October 2008 and 30 April 2009, a random sampling method was conducted to recruit 112 elderly women who were living alone. The subjects were at least 65 years of age. Data was collected using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and the translated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Loneliness Scale (R-UCLA Loneliness Scale). **Results:** In our study, the sources of social support were the children, neighbours, brothers and sisters, in this order. We found that the loneliness of the subjects was related to age, the number of children, and financial difficulty. The level of lonelines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ocial support provided by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other relatives, and neighbours. Also,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ocial support satisfaction. The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the social support offered by neighbours and relatives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loneliness. **Conclusion:** The sources of social support, such as neighbours and relatives, and the social support satisfac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intervention by nurses or social workers to decrease the level of loneliness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Key words : Aged, Social support, Loneliness